

정치적 소통과 글쓰기로서 고전문학 읽기

- 드러냄과 감춤의 미학을 중심으로 -

최홍원(상명대)

〈목 차〉

- | | |
|---------------------------------|-----------------------------|
| 1. 문제제기: '드러남' 표현과 '감춰진' 의미 | 4. 예술 작품에서 글쓰기와 소통으로의
전회 |
| 2. 드러냄과 감춤의 이중구조와 정치
소통론적 접근 | 5. 결론을 대신하여 |
| 3. 드러냄과 감춤의 구현태와 정치적
소통의 양상 | |

1. 문제제기: '드러남' 표현과 '감춰진' 의미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의 한 장면이다. 조선 후기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기에 관심을 끈다.

“생각건대 저 역적 이진유는 실제로 김일경과 박필몽의 흉모를 주관한 자임에도 무단히 배소에서 돌아왔으나, 끝내 정법하라는 명을 아끼고 계십니다. 전하께서는 과연 따뜻하게 베푸는 작은 은혜로 효경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아니면 섬에서 지은 가사(歌詞)가 진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오고 조만정을 잡아 바친 것이 족히 스스로 변명할 단서가 된다고 여기시는 것인지요. 그가 가요(歌謠)를 전파시켜 도하(都下)에까지 흘러들 어 가게 한 것은 정상이 매우 요악합니다.” (『英祖實錄』 21卷 5年 2月 28日)
(밑줄 및 강조: 연구자)

위 기록은 <속사미인곡>이 서울에까지 널리 향유된 사실을 제공해준다. 그런데 당대에도 이미 <속사미인곡>이 ‘진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따른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속사미인곡>은 영조 때 이진유(李眞儒, 1669~1730)가 추자도로 귀양가서 지은 유배가사로 알려져 있다. <사미인곡>과의 관련성을 함의하는 제목의 존재에서 보듯, <속사미인곡>은 충신연주지사 전통의 연장선에서 연군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도 <속사미인곡>에 드러나는 연군이 개인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결과로 여겨지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인 의도 속에서 생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감춰진 의도, 그리고 그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와 간격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함축’이 문학의 주요 속성에 해당하는 만큼 텍스트의 의미가 다의적·중의적이라는 것은 문학의 주요 본질 중 하나이며, 텍스트 이면에 심층의 의도, 의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문학 연구의 공리(公理)에 가깝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텍스트에 드러난 표현과 그 의도 사이의 거리, 간격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출발 지점에서부터 입론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심층의 의미 파악은 자연스럽게 작자의 의도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 ‘의도주의 비평’이라는 혐의마저 받게 된다.

그런데 정치적 현안을 다루는 문학의 경우, 외적 목적과 배경의 강한 구심력으로 인해 경직된 주장과 선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런 만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체로 텍스트 표면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속성은 텍스트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몰이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문학성에 대한 낮은 평가도 이러한 현상의 연속선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속사미인곡>의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연군의 정서를 관습적으로 표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표명 속에 감춰진 해배, 복원의 기원과 같은 또 다른 의도와 의미가 존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드러난 표현과 감춰진 의도는 작품 이해의 중요한 통로이자 매개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소통의 차원에서 문학이 기능하는 경우,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 함몰되지 않고 심층적인 차원에서 감춰진 의도를 읽어내는 일은 작품 이해의 중요한 과제로 요청된다. 이러한 과제는 그동안 “정치문학을 정치적으로 읽는 작업이 불충

분했”¹⁾다는 지적과도 만난다.

그런데 드러난 표현과 구별되는 이면의 의도에 주목하는 것은 자칫 텍스트의 의미를 작자의 생성 의도와 연결짓는 일로 오해될 수 있다. 작품의 외적 사실을 텍스트와 철저히 분리시키는 것 못지않게 생성 의도에 종속시키는 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언어 자체가 지극히 사회적 산물로서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집단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상호 작용이나 의사소통 속에서 생겨나는 산물²⁾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언어는 작자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사회적 환경)의 소유이다”³⁾라는 언명과 같이, 문학 또한 사회적 현상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른다면, 문학은 사회적 글쓰기의 한 행위이며, 여기에는 텍스트를 매개로 한 작자와 독자의 소통 구조가 중요하게 관여한다. 문학 현상 자체가 사회적으로 결정된 방식이며, 사회적 효과를 지닌 방식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맥락의 관점에서 소통의 구조와 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적 맥락에서 소통된 작품을 대상으로, 이들 작품의 특성과 의미를 새롭게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표면적 의미 못지않게 심층의 의도와 의미가 중요한 만큼 이를 살피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들 문학에 대해 문학적 외피를 빌어 이념적 표상을 무차별적으로 투사한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접근과 인식을 가져오려는 것이다. ‘권력의 수사학’과 같은 선입견을 거둬내고⁴⁾ 글쓰기와 소통의 차원에서 의도와 의미를 읽어냄으로써, 소통의 국면에서 문학의 생산방식과 작동 원리를 일면이나마 탐색하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특정 작품군에 국한된 제한적 논의에서 벗어나, 문학 일반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제한된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이 같은 문학

1) 김홍규, 「선초 약장의 천명론적 상상력과 정치의식」, 『한국시가연구』 7, 한국시가학회, 2000, 131면. 이러한 접근과 논의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김성언, 『문학과 정치』,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4), 글쓰기의 실천과 소통의 차원으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54면.

3) 김옥동, 앞의 책, 55면, 86면.

4) 예컨대 <용비어천가> 등과 같은 약장을 두고서 “고금 천하에 없는 大阿諛文學”(이가원, 『조선문학사』, 태학사, 1995, 407면)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이 같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이러한 성격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부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새로운 시각과 접근 태도의 가능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2. 드러냄과 감춤의 이중구조와 정치 소통론적 접근

여러 층위의 텍스트 요소들이 결합 관계에 따라 중층적인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접근을 촉발시킨 바 있다.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학이나 촘스키(Chomsky)의 변형생성문법 등에서 심층과 표층 구조로 이원화하여 설계하는 시도가 있었고, 텍스트언어학에서는 담화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실현되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론을 원용하여 주로 현대문학이나 세계문학을 대상으로 표층 층위와 심층 층위로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했다.⁵⁾

문학 연구에서도 반어와 역설의 기법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이해하는 통로로 표층과 심층의 의미구조가 활용되기도 했다. 문면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숨겨진 의미를 말하는 표현법이 하나의 수사적 장치와 전통으로 자리잡기도 했는데, 알레고리가 바로 그것이다. 알레고리 자체가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기(other speaking)'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에서 보듯, 일차적 의미(표면적 의미)와 이차적 의미(이면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⁶⁾ 고전문학에서 우언 또한 '갑을 말하면서 그 뜻은 을에 두는 비유의 기탁'을 본질로 하는 만큼⁷⁾, 알레고리와 구조적인 상동성을 찾아볼 수 있다. 가전도 하나의 특수한

5)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왕무, 『기호학적 텍스트 분석: <백년동안의 고독>의 의미작용체계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 서울대 스페인중남미연구소, 1992; 오상순, 『표면구조에서의 국책 선전과 심층구조에서의 허구성 비판-현경준의 중편소설 유명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6,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이지은, 『소설의 중층구조와 의미의 생성』, 『뫼히너와 현대문학』 33, 한국뫼히너학회, 2009.

6) 알레고리의 경우, 어원 자체가 '다른'의 의미를 갖는 'allos'와 집회나 시장 등의 공개적 장소에서 '말하다'의 'agoreuein'이 합쳐진 것으로, '달리, 혹은 다른 것을 말하기'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나아가 '공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즉 비밀로 말하기' 혹은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하기'의 뜻을 함의하고 있다. 신광현, 『폴 드 만의 비유 읽기』, 『현대비평과 이론』 16호, 1998 가을·겨울, 308면.

7) 陳蒲淸, 오수형 역, 『중국우언문학사』, 소나무, 1994, 14-15면.

의미 이외에 또 다른 의미로 읽을 수 있는 이중 텍스트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⁸⁾

개별 특질에 대한 작품론적 탐색이나 수사적 차원의 이해를 넘어 장르론적 특질을 해명하는 방법론이 도출되기도 했다. 판소리 작품의 주제가 표면적, 이면적인 것과 같이 양면성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판소리의 흥행성과 광범위한 수용자층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⁹⁾ <춘향가>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각각 열녀의 교훈과 인간적 해방의 주장으로 살피거나, <흥부가>의 주제를 각각 유학의 실천 윤리와 현실의 새로운 인식에서 오는 진보적 주장으로 구분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¹⁰⁾

그런데 정치적 소통의 매개로서 문학이 기능하는 경우, 표면적인 의미와 심층의 의도 사이의 거리는 더욱 심화되고 활성화된다. 문학 자체가 추상적이고 간접화된 기호인 문자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표현의 의도를 감추면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소통의 경우 공리적인 성격의 집단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체로 공적인 목소리를 취하기 마련이다. 공적인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연행의 상황이 개인의 목소리를 더욱 감출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적, 공개적 성격은 작자 개인의 표현 의도와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 요인이 된다.

표면적으로 경건한 공적 목소리를 통해 공리적 내용을 드러내면서 심층에 또 다른 사적 의미를 감춰두는 중층의 구조는 이러한 배경에서 채택된 표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악장 장르를 두고서, “액연적 의미에 관한 한 선초 악장의 기본 성격은 신왕조 건국의 정당성에 대한 유가적 합리화이며, 천하를 손아귀에 쥔 권력의 위광(威光)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수사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타당”할 수 있지만 그 속성상 “내면의식의 수사적 완곡화 내지 간접화”¹¹⁾가 강조되는 장르로 규정하는 것도, 정치적 소통의 특질과 그

8) 김성룡, 「이중 텍스트의 시학과 중층 독해의 이론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 1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9) 조동일, 「판소리의 전반적 성격」, 조동일 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96, 26-28면.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90, 199-200면.

10) 조동일, 「춘향전 주제의 새로운 고찰」, 김병국 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1993, 29-32면. 이 같은 중층성에 대한 해명을 ‘인간 심리의 이중적 속성’에서 찾기도 한다. 김대행, 「판소리란 무엇인가」, 판소리학회편, 『판소리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2000, 26-28면.

에 따른 중층적 구조의 존재를 일깨우는 지점이다. 특히 ‘완곡화’ 또는 ‘간접화’는 있는 그대로를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절제된 표현’과 그에 따른 ‘격식성’에 따라 작품이 구현되는 사실을 가리킨다.

여기서 절제된 표현이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대상이 본래의 그것과는 다른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으로, 작자의 내면 의식과 그것의 표현이 서로 다른 이중성을 띠는 것을 말한다.¹²⁾ 사대부가사의 갈등구조가 심층구조와 표층구조의 이중구조로 분석되는 데 따른 것으로, 표현과 의도의 구현 양태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정치적 소통이 강조되는 악장 장르를 대상으로 표면구조와 이면구조의 중층화로 접근한 연구¹³⁾에서 이러한 가능성과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격식성은 높은 사회적 명성 및 제약된 접촉에 따른 실천 관례 및 담화의 속성으로 알려져 있다. 격식을 갖춘 담화는 화제뿐만 아니라 관련성의 차원, 그리고 상호작용 등에서 특별한 제약을 받는데, 권력 및 사회적 거리감으로 인해 공손함에 대한 강한 요구가 주어진다는 설명이다.¹⁴⁾ 이러한 격식성의 요구는 표현의 의도를 문면에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문학적 장치를 통해 이중적으로 담아내게 만드는 또 다른 배경이 된다.

이처럼 정치적 소통에서는 절제된 표현과 격식성의 요구 등으로 인해 문면에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함축적인 문학 장치를 통해 표현 의도를 숨기고 가릴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표면과 이면의 의미 사이에 거리와 간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거리는 경우에 따라 표면적인 의미가 그 의도를 비껴서거나, 심지어 어긋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감춤과 드러냄의 이중구조는 이 같은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면적인 내용의 표명과 그 이면의 의도 사이의 길항 관계를 제대로 읽어낼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요청되는 것이다.

11) 김흥규, 앞의 글, 134면.

12) 이승남, 『사대부가사의 갈등표출 연구』, 역락, 2003, 63면.

13) 조규익, 「계층화의 명분과 기득권 수호 의지」,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42-48면 참조. 특히 악장 장르는 ‘국가적 이상(표면적 측면)’과 담당계층의 ‘현실적 상황(이면적 측면)’이 중층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장르로 설명된다. 조규익, 「악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승실어문학』 19, 승실어문학회, 2003.

14) Norman Fairclough, *Language and Power*, 김지홍 역, 『언어와 권력』, 경진, 2011, 138면.

3. 드러냄과 감춤의 구현태와 정치적 소통의 양상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응과 소통의 차원에서 문학이 기능하는 국면을 살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실체와 양태에 대한 탐색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로 향가 <안민가>와 악장 <자전지곡>, <문덕곡> 등을 선정한다. 이러한 선정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생산, 소통된 공통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왕을 대상으로 한 작품에 주목하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군신의 관계가 계서적 분 논리를 바탕으로 상하 관계로 정립되어 위계화됨에 따라 절제된 표현과 격식성이 매우 강조되는 데에 있다. 그만큼 직설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의도를 감추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민가>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소통을 강조한 작품으로 의사소통 과정을 압축하는 한편, 다듬어진 표현으로 소통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¹⁵⁾

이처럼 논의의 자료가 몇 개의 작품으로 국한되는 것은, 모든 작품을 다룰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이외에 한정된 자료 안에서 정치적 소통과 그에 따른 드러냄, 감춤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보다 선명하게 하려는 의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후에 살필 작품군은 연구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 이면서, 동시에 방법론으로서의 효용을 살피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3.1. 신하된 자를 향한 경계와 경고, <안민가>

(1) 선명한 의미의 표명과 그에 뒤따르는 의문

君은 어비여
臣은 드스살 어시여
民은 얼흐아히고 흐살디
民이 드술 알고다
구물스다히 살손 物生

15) 신재홍, 『향가와 의사소통』,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68면.

이홀 머기 다스라
 이싸홀 브리곡 어딴갈더 홀디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아으 쾨다이 뽏다이 뽏다이 흥늘든
 나라악 太平흥니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안민가>는 경덕왕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짐(경덕왕)을 위해 백성을 편안히 다스릴 노래를 지어주시오’라고 하니, 승려(충담사)가 즉시 칙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던 특별한 창작 배경과 맥락을 전해준다. 노래의 성격에 주목 하더라도, <안민가>는 국가 사회적 혼란의 상황에서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주문 생산된 노래인 만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선명하고 명료하게 진술되고 있다. 작품 전체의 의미 역시 중세적 가족주의에 기초한¹⁶⁾ 통치 이념으로 수렴되는 데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 정치적 현안에 대해 치도(治道)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서 10구체 향가의 일반적인 모습과 차이점을 볼 수 있을 뿐이다.¹⁷⁾ 이처럼 집단의 이념과 개인적 정서를 드러내는 사적 담화 사이의 차이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사실 <안민가>만큼 “교조적인 규범성의 성명서식 제시가 뚜렷하고 논리적인 전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 없다”¹⁸⁾는 설명과 같이, 작품 내용이 매우 선명하고 명료한 탓에 표현의 의미와 의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텍스트에 드러난 표현이 분명하고 이를 생성한 의도나 배경과 조회해보더라도 큰 어긋남이 없어 보이기에¹⁹⁾, 드러냄과 감춤의 미학을 살피기 위한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16) 신재홍,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216면.

17) 이러한 예외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성격을 띤 향가 작품을 묶어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신재홍, 앞의 글, 190면 참조.

18) 박노준, 『향가여요 중흥론』, 보고사, 2014.

19) 이처럼 <안민가>는 “배경설화와 노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전체적인 의미 맥락을 파악하는 데 별 무리가 없”어 “해독상 논란의 여지가 가장 적은 작품들 중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백미나, 「<안민가>의 의미구조와 주술적 성격」, 『한민족문화연구』 10, 한민족문화학회, 2002, 59면.

그러나 배경 기록과 텍스트의 내용을 숙고하면 작품의 의도와 표현의 의미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안민가>가 내용은 결론, 즉 왕, 신하, 백성이 자기의 직분에 충실할 때 안민을 넘어 태평에 이를 수 있음은 사실 그리 새로운 내용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뜻이 높은 사뇌가를 지었느냐는 왕의 말에 서슴없이 ‘그러하다’고 대답했다는 기록과 비교해보더라도, <찬기파랑가>라는 서정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했던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안민가>의 내용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의 언명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따라서 작품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키기에는 어딘가 모자람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안민가> 이후의 기록은 이 같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다른 향가 작품과 달리 <안민가>의 현실적, 혹은 주술적 효험과 관계된 기록을 실제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볼 지점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하는 <도솔가>나 <혜성가>와 견주어볼 때, 주술적 어법이나 장치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래의 효과와 결과가 배경설화에 생략되어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²⁰⁾ 노래의 효용에 대한 기록의 부재는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이라는 사실과 맞물려 노래의 의의를 의심케 만드는 대목이 된다. 실제로 『삼국유사』에 따르면, 경덕왕대의 정치적 갈등이 마침내 파국에 이르고 말았다는 기록을 함께 전하는데, 여기서 이 노래가 여타의 향가와 달리 목적 달성에 실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에 더해 <안민가>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를 아름답게 여겨 왕사(王師)로 봉하려 했다는 점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작품에 있지 않은가라는 추정을 하게 만든다. 무엇이 과연 경덕왕을 그리 만족하게 했는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을 앞에 두고 이제 <안민가>를 새롭게 읽어볼 차례이다.

20) 논자에 따라서는 <안민가>의 경우에도 노래의 영험력에 대한 믿음에서 창작된 동기에 주목하여 노래를 통해 치국(治國)의 방법을 획득하려 했던, 주술성이 짙은 노래로 보기도 한다.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296면. 그러나 배경설화나 노래 말을 들추어보더라도 주술성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효과마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분명하다.

(2) <안민가>의 드러냄과 감춤의 의미

신라 사회는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각각 고귀함과 비천함으로 정립하고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차이, 차별을 합리화, 정당화하는 것이 당시 문학에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아비, 어미, 어린아이로 설정하고 각자의 직분에 맞는 역할의 수행과 태도의 정립을 언명하는 것은, 이 같은 과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과 대응일 수 있다. 나라를 태평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라는 구절이 『논어(論語)』 「안연편(顏淵篇)」의 내용(‘君君臣臣父父子子’)을 수용하였다고 보아 유가적 정명사상(正名思想)에 바탕을 둔 노래로 보는 것도,²¹⁾ 이 같은 성격에 주목한 입장이다.

백성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 동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당장의 현실적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사회 윤리, 다시 말해 수직적 명분론에 입각한 질서 관념의 강화로 귀결되는 경우를 여러 역사적 기록이 전해주고 있다. 이후에 살펴볼 악장의 경우에도 충, 효, 예, 신 등의 사회 윤리를 강조하는데, 이는 문란하던 고려 말뿐만 아니라 조선 건국 후에도 여전히 요구되는 질서 관념이었던 것과 관련된다.²²⁾ 이러한 설명을 보더라도 <안민가>의 생성 의도와 표현 의미 사이의 특별한 긴장을 아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삼국유사』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의 기록에 따르면, <안민가>의 직접적인 창작 동인은 오악(五岳)과 삼산(三山)의 신들이 대궐 뜰에 모습을 나타낸 사건에 있다. 이러한 신화적 설정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 역사학 연구에서는 당대 정치 세력의 대립, 다시 말해 태종무열왕계와 내물왕계의 왕위 계승 다툼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종무열왕계의 왕통을 고수하는 왕당파와 내물왕계의 왕위계승을 회복하려는 반왕당파의 갈등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낳은 것이다. 백성들의 불안, 동요는 이 같은 정치적 대립에 따른 국가

21) 양주동, 『논어와 국문학』, 『논어』, 현암사, 1966, 393-394면; 변중현, 「안민가」,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443-452면;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368-378면.

22) 조규익, 「계층화의 명분과 기득권 수호 의지」,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37면.

적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며, <안민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의 차원에서 요청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주목해본다면 <안민가>의 청자는 경덕왕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세력의 신하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가설 설정이 가능해진다.

백성의 불안, 동요의 근본 원인이 정치적 대립에 있다면, 문제 해결 역시 이러한 정치적 대립을 야기한 신하들의 태도 변화에서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하는 사랑하실 어미’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차원의 진술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신하의 역할과 소임이 정권의 획득이 아니라 백성을 편안케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왕과 신하는 각각 ‘아버지’와 ‘어미’로 설정되는 것에서 보듯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이어야 하는데, 특별히 신하에게만 ‘사랑하실’이라는 수식어가 덧붙여진 것에서 신하의 이 같은 소임과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듯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신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³⁾ 이는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혜택이 신하들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 속에서 가능함을 일깨우는 대목이기도 하다. 어미와 같은 신하의 역할과 자세 속에서 백성은 사랑을 알게 되고, 비로소 안민을 넘어 태평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1-4행이 원론적인 차원, 정신적 측면에서 왕-신하-백성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라면, 5-6행의 경우 백성의 경제적 삶과 같은 물리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소 이질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군과 신의 치도(治道)가 마땅히 풀어야 할 당면 과제를 세부적으로 확장해놓은 구절²⁴⁾로서 현실적인 맥락에서의 통치 내용을 상세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쟁이 아닌 백성들의 호구지책이 신하의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임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먹여 다스리라’는 구체적인 과제로 명시함으로써 신하가 해야 할 일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된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라는 말로 작품이 종결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각자의 직분에 따른 역할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제 역할을 다하

23) 최선경, 『<안민가> 창작 배경의 의미와 성격』, 『열상고전연구』 13, 열상고전문학연구회, 2000, 143면.

24) 박노준, 앞의 책, 142면.

지 못하는 신하를 대상으로 그에 맞는 도리와 태도를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성의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백성을 ‘사랑해야 할’ 신하들이 제 역할은 하지 않고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²⁵⁾ 이렇게 본다면, 신하들의 세력에 맞서야 했던 경덕왕은 충담사에게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노래를 요청했고, 충담사는 신하들의 마땅한 소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안민가>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도의 존재는 <안민가> 전체가 가정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가정법은 현실에서 그러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는데, <안민가>는 가정법의 수사적 구조를 통해 진술 내용이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백성을 어린아이로 여기실진대’의 표현 이면에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신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작품 세계에서 그려지는 임금, 신하가 현실 속의 경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상적 인간형의 틀에서 파악되는 존재라는 사실²⁶⁾도 가정법의 표현 의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이로써 <안민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진다. <안민가>는 단순히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경세제민의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직분에 맞는 태도와 자세를 요청하는 원론적인 정치 철학을 언명하고 있지만, 그 심층에는 권력의 획득을 위해 민생의 문제를 내버려둔 채 갈등과 반목을 일삼는 정치 현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로써 표면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경덕왕이 크게 만족하여 왕사로 책봉하려 한 까닭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특별한 문학적 장치 없이 정치적인 덕목과 규범이 개진되어 있는 <안민가>조차도 텍스트의 이면에 왕과 신하간의 갈등과 반목의 현실적 긴장 관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안민가>는 고전문학 작품을 작자와 수용자의 소통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하는 까닭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작품이 된다.

25)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백성을 잘 다스려서 편안케 하라는 메서운 메시지가 그 저변을 관류하고 있”(박노준, 앞의 책, 142면)다고 보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26) 서철원, 『향가의 역사와 문화사』, 지식과교양, 2011, 204면.

3.2. 송축과 요구의 줄타기, <자전지곡>과 <문덕곡>

(1) <자전지곡>, 송축과 찬양 그 이면의 거래와 계약

<자전지곡(紫殿之曲)>은 1420년 변계량(卞季良)이 세종에게 지어 올린 악장으로, 『헌수지사(獻壽之詞)』, 『경계지사(警戒之詞)』, 『군신지사(君臣之詞)』의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의 궁전을 가리키는 제목[紫殿]부터 임금을 칭송하는 악곡임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악장이라는 장르 자체가 주로 왕과 신하간 소통 속에서 향유된 만큼, <자전지곡>은 정치적 소통에서 드러남과 감춤의 의미 국면을 살피기에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조선시대 문학이 정치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맺어온 시기²⁷⁾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자료 선정에 또 다른 설득력을 부여해준다. 먼저 제3장 『군신지사(君臣之詞)』의 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相求相應際明時,	서로 찾고 서로 응할 제
龍虎風雲自有期。	밝은 시절 용호가 풍운 만나 스스로 기약함이 있다.
臣節松筠寒不改,	신하의 절개 솔과 대라 추위도 변치 않고
聖恩天地大無涯。	성은은 천지와 같아 가이 없도다.
大矣乾元四德全,	크시도다, 건원 4덕의 온전하심이어!
黃裳坤道順承天。	황상의 곤도는 하늘을 따르고 받드나이다.
使臣以禮事君以忠,	신하를 예로써 부리시면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옵나니
明良相遇值時雍。	밝은 임금 어진 신하 서로 만나 태평시절 이루셨도다.
父母與神明,	부모와 신명처럼
愛之敬之母或替,	사랑하고 공경함을 혹시라도 바꾸지 말아야 하니
元首股肱惟一體。	임금과 신하는 오직 한 몸일 뿐이로소이다.

전체적인 주지는 종결부에 언급된 “임금과 신하는 오직 한 몸”이라는 주장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왕에 대한 송축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음은 여타의 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은은 천지와 같아 가이

27) 이민홍, 『조선중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대출판부, 1993, 13면.

없”고, “황상의 곤도는 하늘을 따르고 받”들고 있어 “태평시절 이루”신 것으로 진술되고 있다. 작품 전체가 왕실과 왕권에 대한 찬양을 읊고 있다는 점은 그 이면의 의미를 끄집어 낼 여지를 없게 만든다. 송축으로 뒤덮여 있는 <감군은>류의 전형적인 작품 세계를 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 노래의 화자인 신하와 청자인 왕의 존재에 주목하여 살핀다면, <자전지곡>에서 언급하는 이들의 관계는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분명 ‘임금과 신하는 오직 한 몸’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도달하는 과정과 조건에서 특징적인 지점들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왕과 신하의 관계가 흔히 생각하듯 상-하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 조율하는 관계로 재정립된다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군신의 관계는 “서로 찾고 서로 응할 제”, “밝은 시절 용호가 풍운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는 왕과 신하가 일방적인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조화의 관계에서 비롯됨을 담고 있다. 왕에 대한 송축과 찬양 이면에 군과 신의 관계를 상호 조화로 설정하려는 의도를 읽게 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왕과 신하의 관계를 일방적인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군신의 조화라는 관계로 재편하고 있으며, 여기서 군과 신 사이에 모종의 계약관계를 이끌어내는 모습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事君以忠]’보다 ‘신하에 대한 왕의 예[使臣以禮]’를 선행시키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군신의 관계는 먼저 신하를 예로써 부리면 그 결과로 신하가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게 된다는 사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 태평시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밝은 임금’뿐만 아니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야만 가능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다. 당시 신하들이 임금에 대한 충성을 절대적인 명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점으로 해석하는 것도²⁸⁾ 이 같은 맥락에 따른다.

다음 구절 또한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부모와 신명처럼 사랑하고 공경함을 혹시라도 바꾸지 말아야 하니”에서는 상호관계가 ‘사랑’과 ‘공경함’으로 대표되는데, 이러한 상호조건이 충족될 때 왕과 신하는 비로소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언명하고 있다. ‘바꾸지 말아야 한다

28) 조규익, 앞의 글, 46면.

는 쌍방의 조건 이행을 강조하면서, 서로간의 노력을 통해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하나의 존재로 발전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왕실과 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 이면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신홍 사대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욕구가 있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왕(왕실)과 사대부 세력의 긴밀한 관계를 ‘현실적 거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신홍 사대부 세력으로부터 왕실과 왕권에 대한 인정을, 그리고 왕권으로부터 신하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이득의 보장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로 풀어내기도 한다.²⁹⁾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더한다면, <자전지곡>은 조선 초 신권의 성장을 배경으로 왕과 신하의 관계 정립과 인식의 조정을 도모한 작품으로 새롭게 읽는 게 가능해진다.

(2) <문덕곡>, 사실적 진술 그 이면의 당위로서의 요구

조선 초 약장이 왕과 신하의 관계로 새롭게 읽히는 것은, <문덕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덕곡(文德曲)>은 태조 2년(1393년)에 정도전이 지은 약장으로, 「개언로(開言路)」, 「보공신(保功臣)」, 「정경계(正經界)」, 「정예악(定禮樂)」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개언로」의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法宮有儼深九重,	대궐이 우람하여 아홉 겹으로 깊으니,
一日萬機紛其叢。	하루에도 만기가 어수선히 쌓이누나.
君王要得民情通,	군주의 할 일은 민정에 밝히 통함이니,
大開言路達四聰。	언로를 활짝 열어 사방의 일에 통달하시네.
開言路 臣所見,	언로 열어 놓으심을 신하들이 보노니,
我后之德與舜同。	우리 임금 성덕이 순 임금과 같다네.

표면적으로 왕에 대한 칭송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나 치적이기보다는 장차 군주로서 가져야 할 당위적 과제 의 성격에 가깝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⁰⁾ 이때의 당위적 과제는 왕으

29) 조규익, 앞의 글, 43면, 57면.

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자세로 구체화되는데, 예컨대 “언로를 활짝 열어 사방의 일에 통달하시네”의 경우에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로서의 주장이 내재되어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기보다는 당위의 성격을 갖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태조는 무인이라 문덕을 스스로 갖출 수 없었다. 정도전이 태조의 문덕이 훌륭하다고 하고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치방침을 그 노래에다 나타냈다.³¹⁾

표면적인 칭송과 송도 이면에 당위적 주장을 담아내는 데에는, 신하들의 정치 참여와 권력 배분 문제가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언로 열어 놓으심을” 보는 주체가 신하들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서도, 단순히 왕에 대한 신하들의 칭송이기보다는 감시와 견제의 의도가 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與舜同’이 표면적으로 최대의 찬사를 나타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군주권의 전횡에 대한 구속으로 해석하는 것³²⁾도 이러한 이해와 시각을 같이 한다. 언로의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과 이를 작품 맨 앞에 구성한 의도가 여기서 분명해진다. 언로는 정치가 왕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없고 신하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가능함을 표상하는 것이면서, 한편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선 초부터 국가를 움직이는 원기로서 공론이 중시되었고, 국왕과 신료 모두 공론 실현의 주체가 되려고 노력하였다는 역사적 사실³³⁾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의도에 주목한다면 ‘보공신’의 가치가 곧이어 제시되는 것도 예상롭지 않다.

聖人受命乘飛龍, 성인께서 천명을 받아 용을 타고 나시니,
多士競起如雲從。 많은 선비 앞다투어 구름처럼 따르도다.

30) 김홍규, 앞의 글, 137면.

3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94, 307면.

32) 김홍규, 앞의 글, 138면.

33) 김인걸, 『조선사회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길잡이』, 지식산업사, 2008, 345면.

協謀效力成厥功,	지혜와 힘을 모아 그 공을 이뤘으니,
誓以山河保始終。	산하를 두고 맹세하여 변함이 없기를 약속했네.
保功臣臣所見,	공신들 보살피심을 신하들이 보았노니,
我后之德垂無窮。	우리 임금 성덕이 무궁에 드리우리.

표면적으로는 “천명을 받아 용을 타고 나”신 왕의 덕을 칭송하고 있다. “우리 임금 성덕이 무궁에 드리우리”와 같은 찬사로 마무리 짓는 것도 이러한 성격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 같은 송도의 성격 못지않게 신하들의 존재와 역할도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개국은 왕의 덕뿐만 아니라 “많은 선비 앞다투어 구름처럼 따랐”고 그 “지혜와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읽게 된다. 다시 말해 수많은 신하의 지혜와 힘이 조선을 건국한 중요한 힘이었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노래는 표면적으로는 왕의 칭송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신하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전달하려 한 것임을 추론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런 의도 속에서 본다면, 『개언로』 부분과 마찬가지로 “공신들 보살피심을 신하들이 보았노니”는 사실의 진술이기보다는, 앞으로 이행되어야 할 계약 조건이면서 왕이 수행해야 할 과제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건대 <문덕곡>의 『개언로』, 『보공신』, 『정경계』, 『정예악』 네 장은 사실에 대한 송축의 표현 이면에 해야 할 일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표면적으로 왕의 성덕에 대한 예찬으로 가득 찬 노래이지만, 그 속에는 공신 집단의 정치적 참여와 권력 배분을 요구하는 또 다른 심층적 의미가 내재하고 있다. 이처럼 표면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의 중층 구조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같은 악장 장르인 <용비어천가>와 비교해 볼 때 보다 선명해진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 육조(六祖)의 행적을 칭송하는 노래이다. 이러한 성격과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110장부터 125장에 이르기까지는 ‘마르쇼서’로 대표되는 후세 왕에 대한 경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특징도 보이고 있다. 왕들이 지켜야 할 도리나 직분을 ‘잊지 마소서’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기에 특별히 이 부분을 ‘勿忘章(물망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용비어천가>를 두고서 ‘조선 왕조 성립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찬가’이면

서 천명이라는 가치 준거를 통해 왕권의 전횡을 규제하는 장전(章典)이고자 했던 것³⁴⁾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이 같은 특징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다음의 발문에서도 확인된다.

뒷날의 군주들이 이를 본다면 오늘의 일어난 까닭을 알고 이를 길이 계승하려는 마음이 일어서, 간직하고 지켜야 할 법도를 감히 스스로 바꾸지 못할 것이며, 나라 사람들이 이를 본다면 오늘의 편만한 까닭을 알고 길이 잊지 못하는 마음을 일으켜, 사랑하고 사모하는 정성이 그지없을 것입니다. (崔恒, 『龍飛御天歌跋』)

이처럼 <용비어천가>는 육조에 대한 예찬과 더불어 후대 왕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전면에 내세우는 구성 체제를 취하고 있다. <자전지곡>, <문덕곡> 등이 표면과 이면의 구조를 통해 절제된 표현과 격식성을 갖추어 전달하려 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용비어천가>는 권고 내지 경계의 내용을 구성의 한 부분으로 할애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악장은 왕과 신하가 노래를 통해 정치적으로 소통하는 대표적인 장면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전지곡>이나 <문덕곡>과 같이 여러 수사적 장치를 동원하여 왕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고 있으나, 그 이면에 왕에 대해 충간하는 이중적인 구조도 찾아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들 노래에는 ‘군신간에 화목해야 한다’는 평범한 명제만이 드러나지만, 그 심층에는 ‘군신간의 힘겨루기’라는 이면구조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케 되는 것이다.³⁵⁾ 악장 작품이 연군, 혹은 충군의 정서를 바탕으로 신하된 자의 도리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신간 상호조화의 관계를 설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왕의 도리를 요구하고 있음은, 드러냄과 감춤의 소통 구조를 통해 읽게 되는 새로운 내용이 된다.

34) 김홍규, 앞의 글, 143면.

35) 조규익, 앞의 글, 47면.

4. 예술 작품에서 글쓰기와 소통으로의 전회

4.1. 정치적 글쓰기로서 문학

일찍이 “문화가 정치의 고상한 대용품 구실”³⁶⁾을 해왔으며, 특히 문학이 그 주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왔음을 우리 문학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미적 고유성(문학성)에 주목하는 문학 연구와 만나게 되면, 부정적인 평가의 도출은 당연한 결과로 예견된다. 여기에는 본래 문학이 예술 작품으로서 실용적 기능을 갖지 않고 비실용적 용도를 위해 사용되는 담론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³⁷⁾

문학으로서의 텍스트의 특수한 용도는 텍스트의 발생적 상황에서 그 텍스트를 이탈시키는 데 있으며, 그러한 텍스트는 어떠한 특수한 콘텍스트에서 실천적 수용의 일부로 전제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그들의 발생적 콘텍스트 밖에서 널리 읽혀지고, 그것들은 어떤 각별한 콘텍스트와도 관련을 맺지 않는다.³⁸⁾

이러한 설명에서 문학은 생성 당시의 특정 의도나 맥락과 상관없는 ‘예술 작품(work of art)’으로서 자율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전제된다. 문학을 문학답게 만드는 객관적 요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텍스트의 미적 질서나 장르적 관습의 해명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게 된다. 문학성으로 규정되는 고유 용법에 따라 문학을 정의하고 그 짜임새와 구조를 해명하려 했던 모습을 일찍이 형식주의, 신비평의 역사에서 상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을 인간의 의식이나 의향과 무관하게 관찰되는 하나의 대상, 독립적 실재물로 이해하는 대상론(object-theories)뿐만 아니라, 의향적 행위(intentional behaviour)의 한 분편으로 보는 행위론(act-theories)의 관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 작품은 어떤 의도로 쓰여졌거나 말해진 하나의 표현으로, 특정 시점에서 발언자에 의해 생산되어 특정의 수신

36) 유종호, 『문학은 끝나는가』, 세창출판사, 2015, 31면.

37)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지성사, 2006, 103면.

38) John Ellis, *The Theory of Literary Criticism: A Logical Analysis*, Berkeley, 1977, 44면.

자들에게 전달되는 발화로서의 성격을 갖는다.³⁹⁾ 여기서 ‘발화’는 작품, 예술, 미적 대상 등과 구별되는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바르트의 경우에도 문학을 사상이나 느낌 또는 어떤 이야기나 내용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통념에서 벗어나 ‘글쓰기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⁴⁰⁾ 문학은 사회라는 수신자를 고려하여 변모하는 글쓰기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문학은 세계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글쓰기로, 그 자체가 세계 속에 참여하는 행위가 된다.

문학이 쓰기와 읽기의 실천과 참여 행위에 해당한다면 소통과 향유의 측면 또한 중요한 본질이 될 수 있다. 실체로서의 문학 이외에, 작가-독자의 소통이 전제되는 글쓰기 실천으로서의 국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는 더 이상 작품 속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고 변화하는 가치이며, 따라서 작품의 요소들로 환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작품의 요소와 생산, 수용의 요인이 상응하고 긴장하면서 만드는 효과에서 찾아진다.⁴¹⁾ 이처럼 생산과 수용을 매개로 한 글쓰기의 관점에서는 소통 맥락에서의 의도와 효과, 그리고 수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도 가치 평가의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문학과 정치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찍이 루소(Rousseau)는 언어의 문제를 존재의 사회적, 정치적 표현으로 규정했고⁴²⁾,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경우에도 텍스트를 정치혁명의 실천에 빗대기도 했다.

텍스트는 정치혁명의 실천에 비할 수 있을 하나의 실천이다. 왜냐하면 텍스트의 실천은 정치혁명의 실천이 사회 내에 도입하는 것을 주체 내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⁴³⁾

39) Stein Haugon Olsen, *The Structure of Literary Understanding*, 최상규 역, 『문학이해의 구조』, 예림기획, 1999, 9-22면.

40) Roland Barthes, *Degré zéro de l'écriture*, 김웅권 역, 『글쓰기의 영도』, 동문선, 2007.

41) 천정환, 『새로운 문학연구와 글쓰기를 위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학사학회, 2004, 396면.

42) 서규환, 『열린 총체성의 해석과 정치』, 다인아트, 2009, 53-98면.

43) Julia Kristeva,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김인환 역,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2000, 16면.

문학의 정치가 작가의 정치적, 사회적 투쟁의 직접적 실천이나 참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생성과 실천을 뜻하며, 따라서 그 자체가 이미 정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된다. 실제 정치의 의미에도 권력의 행사나 통치 기술 이외에 참여와 대화, 토론 및 합의 과정을 뜻하는 광범위한 의미역이 존재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으로서의 정치의 의미 또한 찾을 수 있다.⁴⁴⁾ 정치의 개념 자체가 이러하다면, 집단적 실천 형태로서 정치, 그리고 글쓰기의 실천으로서 문학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⁴⁵⁾ 여기서 문학은 단순한 표현의 차원을 넘어 실재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상징적 권력의 영역이 되고, 문학을 매개로 한 정치적 소통의 국면은 이러한 권력에 대해 참여와 대화를 통해 합의의 과정이 펼쳐지는 실천의 장이 된다.

창작은 작가가 전형을 사용하여 독자와 소통하는 행위이다. 전형에는 시대와 독자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고 사회와 문학에 대한 독자의 기대도 포함되어 있다. 운율과 비유, 구성과 문체 같은 문학 층위와 욕망과 언어, 노동과 실천 같은 정치 층위가 서로 전경이 되거나 배경이 되면서 기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⁴⁶⁾

위 설명에서도 문학은 작가, 독자의 의사소통 행위이며, 작품은 문학 층위와 더불어 욕망, 노동 등과 같은 정치 층위가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상호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수 있다. 문학과 정치가 소통을 매개로 연관된 것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지점이다.

이처럼 문학 텍스트는 의미의 실천과 수행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작자에게 문학 행위는 글쓰기를 통한 의미 작용과 그 실천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 정치적 소통의 국면은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되는 대표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독자의 의미 전달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44) 이승훈, 『인문학과 정치』, 『현상과인식』 Vol. 34 No 3,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0, 156면. 바르트 또한 '정치적인 것'과 '정치'를 구별하면서, 전자는 역사와 사유, 모든 행해지고 말해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범주로서, 실재의 차원 그 자체로 설명한 바 있다. Roland Barthes, 김희영 편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210면.

45) Jacques Rancière, *Politics and literature*,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9면.

46) 김인환, 『글쓰기의 방법』, 작가, 2005, 20면.

그런 만큼 의미의 드러냄과 감춤은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의 한 실천 양태인 것이다. 문학이 글쓰기이며 정치적 행위라는 입장에 서게 되면, <안민가>, <자전지곡>, <문덕곡>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길이 열린다.

4.2. 정치적 소통으로서 시가

정치적 국면에서 시가뿐만 아니라 우언 등도 하나의 문화적 관습으로 널리 향유된 바 있다. ‘에둘러 말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시가와 우언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⁴⁷⁾, 이들과 구별되는 시가의 효용과 특질이 궁금해지며, 특별히 시가가 정치적 소통의 매개로 사용되는 국면에 대해 물음을 갖게 된다.

우언, 가전과 시가 모두 표면과 이면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그러나 우언이나 가전의 경우 대체로 표면의 층위와 이면의 층위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표면적인 의미가 어떤 사태를 적실하게 표현해낸 것임을 파악할 수 있게 설계된다. 이와 달리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내용을 ‘넌지시’ 전달하는 것이 요구될 때, 드러냄의 부담과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가의 함축성이 활용되는 것이다. 약장의 이면적 의미를 통해 산문과 구별되는 시가의 특징을 설명하는 다음의 글도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전제 군주제도의 기본 성격임을 감안하면, 실질이야 어떻든 명분의 측면에서 이런 거래(연구자주-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보장)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요구 사항을 말이나 논리를 갖춘 산문으로 전달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았다. 말이나 산문은 대개 직설적일 뿐 아니라 함축성 또한 부족하므로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현실적인 요구를 전달하는 데 부적절하기 마련이다. 맥락의 느슨함, 복잡한 패턴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점, 자족적

47) 우언의 경우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현실과 거리를 두고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알기 쉽게 설득한, 즉 화자와 청자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모한 글쓰기 방식에 해당한다(권아린, 『우언의 기탁성에 대한 재론』, 『중국문학연구』 53, 한국중문학회, 2013, 26면). 따라서 의도와 표현 기법 면에서 감춤, 드러냄의 구조와 상당 부분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세부묘사, 의미의 우열관계를 설정하기 쉽다는 점 등 산문이 지니는 특징들을 감안할 때 분명히 현실적인 요구이면서 시와 노래의 형태를 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명해진다.⁴⁸⁾ (밑줄 및 강조: 연구자주)

이러한 설명에서 보건대, 시가는 산문과 구별되는 함축적인 속성에 따라 드라마와 감춤의 중층구조를 설계, 실현하기에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표현의 의도를 담으면서도 동시에 이를 그 이면으로 감추는데 효과적인 글쓰기 양식인 것이다. 특히 시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회적 발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절제된 표현과 격식성을 요구받게 되는데, 감춤과 드라마의 표현 구조는 이러한 맥락에서 선택되고 활용되는 하나의 문화적 관습으로 작용하게 된다.

나아가 시가는 본래 주체의 서정을 표현하는 개인적인 노래로 이해되지만, 개인의 창작 의식과 미의식만을 배타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향유하는 동류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통로로도 작용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⁹⁾ 실제로 시가가 향유되는 현장에서는 언어적 메시지의 속성뿐 아니라, 이를 공유하는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상호관계를 만들어내면서⁵⁰⁾ 궁극적으로 동류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노래의 양식은 집단적 소통과 향유를 통해 한 개인의 목소리를 넘어서서 공동과 집단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 내세우기 어려운 입장과 견해에 대해 공동의 관계 속에서 집단의 인식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작가, 혹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화자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 마음 속에서 의도한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public)’”⁵¹⁾이라는 성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의도와 의미가 집단적 소통과 향유를 거치면서 공적인 것으로 실현됨을 뜻한다.

여기서 경덕왕이 충담사에게 노래를 요청한 배경, 그리고 변계량이나 정도전이 노래의 양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려 했던 까닭에 대해 해명의 실

48) 조규익, 앞의 글, 47면.

49) 박애경, 『한국 고전시가의 근대적 변전과정 연구』, 소명출판, 2008, 16-17면.

50) 류정아, 『연행이론의 인류학적 재해석』, 서울대 인류학연구회 편,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1998.

51) George Dickie, 오병남, 황유경 역, 『미학입문』, 서광사, 1983, 165면.

마리를 찾게 된다. 이들은 특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전달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래의 양식으로 표현, 전달하려 했던 데에는, 개인 차원의 생각과 입장을 떠나 동류 집단의 연대감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공동의 것으로 집단화하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의식과 입장의 문제였던 만큼, 노래의 연행을 통해 이러한 의식과 입장을 공동화, 집단화하는 과정이 특별히 요청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시가의 효용과 가치의 문제가 생성과 소통의 맥락 속에서 재차 확인되는 지점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정치와 시(문학)의 만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다음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은 시가 정치와 어느 만큼의 결합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꺼려, 정치가 미치는 곳은 설사 사회적 사건의 전 범위에 걸친 것일지라도 시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정치가 시의 영역을 넘보면 대개가 성공하지 못할뿐더러 때로는 통탄스러운 결과를 빚어 그 영향은 본래 순수해야 할 예술을 더럽힌다고 그들은 생각한다.⁵²⁾

그러나 바흐친의 말대로 언어적 행위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조건지어지고 문학이 사회적 실천 행위라고 한다면, 시와 정치의 만남은 불가피한,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핀 바대로 문학이 사회적 실천으로서 글쓰기 행위이며, 따라서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해가 더해져야 한다. 문학은 자족적인, 혹은 자율적인 예술 작품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작가-독자 그리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소통과 실천이 강조되는 글쓰기의 문제일 수 있다.

이 글은 <안민가>, <자전지곡>, <문덕곡>이 정치적 소통이라는 특별한 맥락 속에서 생성, 향유되었다면, 이러한 요인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해되고

52) Cecil Maurice Bowra, *Poetry and Politics*, 김남일 역, 『시와 정치』, 전예원, 1983, 13면.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문학이 하나의 소통이자 실천이라면, 정치적 소통의 맥락에서의 이해와 그에 따른 관심의 전환이 요청된다는 생각이 입론의 바탕이 되었다. 감춤과 드러냄의 구조는 정치적 소통의 공개적인 맥락, 그리고 절제된 표현과 격식성의 요구 속에서 선택된 효과적인 표현 및 전달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로써 텍스트에 드러난 표현 이외에 그 심층의 의도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작자-독자-텍스트의 구성 요인을 넘어, 특정 수신자를 고려한 고도의 의미 생성 및 전달의 전략임을 확인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정치적 소통과 실천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정작 논의 과정에 수용자,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와 반영이 부족했음은 한계로 지적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당대 수용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은 일차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에서 연유하지만, 방법론의 부재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밖에도 자의적인 연구 자료의 선정 또한 이 연구의 본질적인 한계이다. 작자와 수용자, 그리고 사회적 맥락의 실체에서부터 상호작용에 대한 입체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를 남긴다.

〈참고문헌〉

- 권아린, 『우언의 기탁성에 대한 재론』, 『중국문학연구』 53, 한국중문학회, 2013.
- 김대행, 『판소리란 무엇인가』, 판소리학회편, 『판소리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2000.
- 김성룡, 『이중 텍스트의 시학과 중층 독해의 이론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 1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 김성연, 『문학과 정치』,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4.
- 김육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 김인걸, 『조선사회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길잡이』, 지식산업사, 2008.
- 김인환, 『글쓰기의 방법』, 작가, 2005.
- 김태환, 『문학의 질서: 현대 문학이론의 문제들』, 문학과지성사, 2007.
- 김홍규, 『선초 악장의 천명론적 상상력과 정치의식』, 『한국시가연구』 7, 한국시가학회, 2000.
- 나경수, 『향가문학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 류정아, 『연행이론의 인류학적 재해석』, 서울대 인류학연구회 편,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1998.
- 박노준, 『향가여요 중흥론』, 보고서, 2014.
- 박애경, 『한국 고전시가의 근대적 변전과정 연구』, 소명출판, 2008.
- 백미나, 『〈안민가〉의 의미구조와 주술적 성격』, 『한민족문화연구』 10, 한민족문화학회, 2002.
- 변종현, 『안민가』,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 서규환, 『열린 총체성의 해석과 정치』, 다인아트, 2009.
-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1998.
- 서철원, 『향가의 역사와 문화사』, 지식과교양, 2011.
- 신광현, 『폴 드 만의 비유 읽기』, 『현대비평과 이론』 16호, 1998.
- 신재홍,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 신재홍, 「향가와 의사소통」,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 양주동, 「논어와 국문학」, 『논어』, 현암사, 1966.
- 유중호, 『문학은 끝나는가』, 세창출판사, 2015.
- 이가원, 『조선문학사』, 태학사, 1995.
- 이민홍, 『조선중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대출판부, 1993.
- 이승남, 『사대부가사의 갈등표출 연구』, 역락, 2003.
- 이승훈, 「인문학과 정치」, 『현상과인식』 Vol. 34 No 3,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0.
-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 조규익, 「계층화의 명분과 기득권 수호 의지」,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조규익, 「약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승실어문학』 19, 승실어문학회, 2003.
-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90.
- 조동일, 「춘향전 주제의 새로운 고찰」, 김병국 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1993.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94.
- 조동일, 「판소리의 전반적 성격」, 조동일 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96.
- 천정환, 「새로운 문학연구와 글쓰기를 위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학사학회, 2004.
- 최선경, 「〈안민가〉 창작 배경의 의미와 성격」, 『열상고전연구』 13, 열상고전문학연구회, 2000.
- 최홍원, 「정치적 행위로서의 글쓰기, <죽창곡>과 감군의 정서」, 『어문학』 124, 한국어문학회, 2014.
- 陳蒲淸, 오수형 역, 『중국우언문학사』, 소나무, 1994.
- Barthes Roland, *Le Plaisir du texte*, 김희영 편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 Barthes Roland, *Degré zéro de l'écriture*, 김웅권 역, 『글쓰기의 영도』, 동문선, 2007.

- Bowra Cecil Maurice, *Poetry and Politics*, 김남일 역, 『시와 정치』, 전예원, 1983.
- Dickie George, *Aesthetics: An Introduction*, 오병남, 황유경 역, 『미학입문』, 서광사, 1983.
- Ellis John, *The Theory of Literary Criticism: A Logical Analysis*, Berkeley, 1977.
- Fairclough Norman, *Language and Power*, 김지홍 역, 『언어와 권력』, 경진, 2011.
- Kristeva Julia,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김인환 역,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2000.
- Olsen Stein Haugon, *The Structure of Literary Understanding*, 최상규 역, 『문학이해의 구조』, 예림기획, 1999.
- Rancière Jacques, *Politics and literature*,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정치적 맥락에서 소통된 작품을 대상으로 그 특성과 의미를 새롭게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표면적 의미 못지않게 심층의 의도와 의미가 중요한 만큼, 드러냄과 감춤의 미학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읽어내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소통의 경우 집단의 문제를 대상으로 공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공적 목소리를 취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 공리적 내용을 드러내면서 심층에 개인적 의미를 감춰두는 중층의 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소통된 <안민가(安民歌)>, <자전지곡(紫殿之曲)>, <문덕곡(文德曲)> 등을 연구 자료로 설정한다. <안민가>는 왕과 신하들의 갈등과 반목의 현실적 긴장 관계 속에서 생성된 특별한 맥락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민가>에서는 표면적으로 명료하고 선명하게 의미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신하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된다. <자전지곡>과 <문덕곡>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악장의 하나이다. 그러나 송축과 찬양 이면에 신하들의 정치 참여와 권력 배분을 보장받으려는 모종의 거래와 요구의 성격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학은 미적 고유성 이외에 수신자를 고려한 발화나 글쓰기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소통의 국면에서는 이 같은 소통과 실천의 자질이 강조됨을 보게 된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안민가>, <자전지곡>, <문덕곡> 등과 같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주제어: 정치적 소통, 감춤, 드러냄, <안민가(安民歌)>, <자전지곡(紫殿之曲)>, <문덕곡(文德曲)>, 글쓰기, 실천

【Abstracts】

Reading Classical Literature as Political Communication and Writing

– Focussed on Aesthetics of Showing and Hiding –

Choi Hong-won

This study aims at prob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works which were communicated in the political context. In the process, I intended to understand the 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esthetics of showing and hiding as not only superficial meaning but also in-depth meaning is important in the political context. In particular, in political communication, it seems that public voice appears as the feature of public interest is emphasized for the group problems. Therefore, the structure of overlap layers in which the contents in relation to public interests emerge on the surface and individual meanings are concealed far below.

<Anminga(安民歌)>, <Jajeonjigok(紫殿之曲)> and <Mundeokgok(文德曲)>, which are communic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ings and servants, are chosen as research materials. <Anminga(安民歌)> has special contexts generated in the realistic tension relationship of conflict between a king and servants. Considering this, we assume that meaning is crystal-clear on the surface and the hidden side contains messages of strict

warning toward servants in the work. For <Jajeonjigok(紫殿之曲)> and <Mundeokgok(文德曲)>, they are one of Akjangs(樂章) composed of contents to praise kings on the surface. At the same time, on the hidden side of praising kings, it appears that there is a kind of demand to be guaranteed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the participation in politics.

Through this study, it seems that literature has the feature as utterance or writing to consider recipients and such attribute of communication and practice is highlighted, particularly in the phase of political communication. New perception and evaluation about the works, such as <Anminga(安民歌)>, <Jajeonjigok(紫殿之曲)> and <Mundeokgok(文德曲)>, is likely to be possible with such an understanding.

Key words: political communication, hiding, showing, <Anminga(安民歌)>, <Jajeonjigok(紫殿之曲)>, <Mundeokgok(文德曲)>, writing, practice

이 논문은 2015년 9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0월 29일에 심사 완료 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